

# “안전자산 선호”... 金 한 돈 45만원 돌파 ‘역대 최고’ 경신

### 16일 기준 3.75g 장중 45만4천원 거래 2005년 한국금거래소 개장 후 첫 기록

금값 시세가 한 돈에 45만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는 이란-이스라엘 충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순금 한돈(3.75g)이 최고 45만4천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 2005년 한국금거래소 개장 이래 최고 기록이다.

한 돈을 팔 때는 장중 한 때 최고액으로 순금 30만2천원, 18K 28만8천200원, 14K 22만3천500원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상 거래 움직임의 회복이 엿보이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중고 거래 사이트인 당근마켓에서 시계, 돌반지, 금니 등 최

근 금시세를 언급하며 구매해두려는 판매 글이 잇따라 게재되고 있다.

또 금ETF, KRX금현물 등 금거래를 통해 제테크를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하지만 광주지역 금은방은 높은 시세로 인해 거래가 급감하면서 울상을 짓고 있다.

서구 한 금은방 주인은 “금값이 올라 차익 실현을 위해 파는 고객도 있지만 경제 불황때문에 파는 경우가 더 많다”며 “유품 등 오랫동안 간직해 온 것들을 어쩔 수 없이 판다거나, 대충이자 때문에 혹은 전세 세입자에게 돌려줄 자금 마련을 위해 파는 사연 등을 듣다보면 눈물이 날 정도”라고 전했다.

광산구 한 금은방 주인은 “코로나 전에는 마음이 여유로워 차익 실현용으로



중동지역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며 국제 시장 금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귀금속 판매점.

판다면 지금은 생존의 개념으로 파는 고객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동구 한 금은방 주인은 “장사를 계속

이어가야 할 지 고민하고 있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순금 한 돈 30만원 이상 넘어가면서 사실상 소

매 거래가 실종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이 주인은 “금거래소 한 돈 시세가 45

만원 대면 소매가는 5만원이 넘는 정도여서 시민들이 순금을 사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금값에 대해 서구지역 한국금거래소 관계자는 “금값은 탈 달러화가 지속되면서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인다”며 “금값 상승 요인은 전쟁 등도 있지만 탈 달러 현상이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라고 진단했다.

관계자는 “러시아, 인도, 중국 등도 탈 달러화 추세고 중국은 달러를 팔아서 금을 다량 구매하고 있다”며 “달러에 대한 기대감이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 달러에 투자하지 않고 금에 투자한다”고 덧붙였다.

동구지역 한국금거래소 관계자는 “금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매수는 돈 많은 고객 중심으로, 매매는 돈이 필요한 고객 위주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이란-이스라엘 충돌이 확전 양상을 보인다면 안전자산인 금값 시세가 더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임재만·정은순 기자

## 광주문화신포럼 ‘아시아태평양 스티비상’ 동상 수상

### 출판 부문... 신포럼 과거·현재·미래비전 제시 우수한 평가

광주문화신포럼은 16일 “2024년 아시아-태평양스티비상(2024 Asia-Pacific Stevie Awards)” 출판 부문에서 동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 스티비상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29개 시장에서 직장 내 혁신을 인정하고 기념하는 유일한 비즈니스 시상 프로그램으로, 22년 동안 Stevie Awards는 International Business Awards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성과를 인정하는 세계적 수준의 비즈니스 상으로 널리 알려져 왔다.

금상, 은상, 동상 스티비상 수상자들은 전 세계 100여명의 경영자들에 의해 2월과 3월에 걸쳐 진행된 심사를 거쳐 선발됐다. 우승자는 5월24일 금요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갈라 행사에서 축하할 예정이다.

광주문화신포럼 고영철 이사장은 “광주문화신포럼의 탐과 노력, 희생과 헌신이 담긴 30년 역사서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9만여 조합원님의 신뢰와 성원 덕분”이라며 “자랑스러운 역사를 함께 만들어 온 임직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조합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신포럼’이 하는 일을 통해 세상을 바꾸겠다”는 믿음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임재만 기자

출판 부문에서는 ‘광주문화신포럼 30년사, 정직과 신뢰로 지역사회에 희망을 밝히다’(사진가 동상)를 수상했다. 광주문화신포럼 변화의 역사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창립정신이 담긴 스토리로 구성해 광주문화신포럼의 과거와 현재, 미래 비전을 제시해 신포럼인의 자긍심을 높였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마 브리즈 반팔 후드 아노락과 크로마 브리즈 반바지 등을 판매한다. 지난해 8월 문을 연 UFC 스포츠 역시 라이선스 브랜드의 인기 속에 주목 받고 있다.

UFC 스포츠는 종합 격투 스포츠 UFC의 스포츠 정신을 바탕으로 탄생했다. 스포츠 제품인 레드 라인을 중심으로 캐주얼 의류가 포함된 화이트 라인, 프리미엄 품목을 생산하는 블랙 라인까지 여러 라인업을 갖췄다. 기능성 소재로 운동 효과를 극대화

한 UFC 텐션 빅로고 머슬핏 반팔티셔츠와 UFC 전 미들급 챔피언 알렉스 페레이라 그래픽이 포인트인 포아탄 릴렉스핏 반팔 등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정일 광주신세계 신관팀장은 “코닥, UFC 등 대중에게 친숙한 브랜드를 앞세운 라이선스 브랜드들이 소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며 “고객들이 주목하는 라이선스 브랜드를 앞으로도 꾸준히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정은순 기자



## 시각장애인과 명소 탐방 봉사들이

### KT 전남전북광역본부, 장애인의 날 맞아 노사공동 개최

KT 전남전북광역본부 16일 “KT 노동조합 호남지방본부와 함께 노사공동 사회공헌 활동으로 장애인의 날 맞아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명소 탐방 봉사들이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리며 서로를 이해하고 평소 나들이 기회가 많지 않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일상에서 벗어난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각장애인들은 목포 해상 케이블카를 타고 바다를 건너며 상쾌한 봄바람을 즐기고 갯바위 공원에서는 활동보호사의 안내를 받으며 자연의 향기와 소리를 느끼는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체험들을 만끽했다. <사진> 처음 케이블카를 탄 한 시각장애인은 “바다 위를 나는 듯한 놀라운 기분이었다”며 “이번 여행은 새로운 경험을 하고 봄의 따스한 기운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날 KT 노동조합 호남지방본부 위원장은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시각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진행하게 돼 매우 기쁘고 단순한 나들이가 아닌 장애인들이 사회의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KT노동조합은 앞으로도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지 기자

## ‘코닥’·‘UFC’ 라이선스 브랜드로 MZ 공략

### “소비자 긍정 반응” 광주신세계, 작년 매출 60% 30대 이하 차지

최근 브랜드가 갖는 높은 인지도를 마케팅에 곧바로 활용 가능한 라이선스 브랜드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광주신세계 신관 지하 1층에 자리한 코닥, UFC 등 라이선스 브랜드의 지난해 매출을 분석한 결과 30대 이하 소비자들의 구매 비율이 전체 매출의 6

0%를 차지했다. 코닥 어패럴은 20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코닥 필름의 브랜드를 라이선스 해 만든 아웃도어 캐주얼 브랜드다.

소프트한 터치감과 시원한 소재감을 사용해 여름 내내 착용할 수 있는 크로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갖는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장이면서 인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사·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8미를 품은 땅끝 해남**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5일장**

**해남군 북평면 남창5일장**

**해남읍 5일장**

맛(미) 해남의 풍부한 농수산물 먹거리, 미(아름다움 미) 아름다운 남쪽 해남, 미(미혹할 미) 마음이 이끄는 곳, 미(글 미) 해남의 땅끝의 감성, 테라피 해남

직접 농가에서 수확한 신선한 농산물과 인근 바다에서 수확한 해산물(낙지, 굴, 숭어, 전어)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옛 시골장의 정취를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 장이 서는 날 ◎

- 우수영5일장 : 매월 4일, 9일로 끝나는 날
- 남창5일장 : 매월 2일, 7일로 끝나는 날
- 해남읍 5일장 : 매월 1일, 6일로 끝나는 날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해남군**

문의 : 062)650-2099